

研究發表

朱子와 現代

九州大名譽教授·文博 岡田武彦

I

朱子學이 現代의 社會 혹은 思想界에 寄與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問題에 관한 研究는 遺憾스러우나 從來 그렇게 行해지지 못했었다. 朱子學 自體의 研究와 아울러 精密하게 되고 각각의 分野에 있어서 詳細한 研究가 行해졌으나 여기서 論述한것과 같은 課題와는 거의 關係없이 이루어 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課題에 관해서의 研究야말로 朱子學研究家가 다루어야 할 緊要事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와같은 研究에 從事하여 朱子學의 現代的意義를 새로히 自覺하고 現代人의 思想의 創造發展에 貢獻하것금 努力않는다면 現代의 社會人으로부터 거의 忘却되어 때로는 嫌惡의 情을 가지고 白眼視되었기 때문에 거의 死滅에 가까운 狀況에 있는 朱子學의 回生은 期하기 어려우며 實로 이것이 朱子學研究의 第一義이며 그 精神을 살리는 根本이며 從來와 같은 研究에만 끝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朱子學에만 限하는 것이 아니고 東洋學全般에 관해서 말할수 있는 것이다. 다만 朱子學이나 陽明學이라고 하는 近世의 新儒學의 경우는 특히 그 必要性을 通感한다. 東洋學에 관해서는 近代에 와서 歐美의 識者로부터 注目받게 되었지만 그것도 佛敎學이 많고 특히 禪學에의 關心이 強하다. 이에 反해서 朱子學이나 陽明學에 對한 關心은 극히 稀薄하며 이에 대한 研究는 大地에 埋沒된 遺跡의 發掘에 從事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니 하물며 現代의 生活社會에 持參하여 크게 所用되게 할려는 心算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긴 歲月, 西洋의 華麗한 思考에 배어 온 日本人에 있어서는 이들 新儒學이 提唱하는 것은 너무도 簡素하며 地味하여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

지만 실은 이 속에야말로 現代人에 있어서 가장 必要한 조용하면서도 깊은 生命力을 갖는 思想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I

朱子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宋諸儒의 學을 集大成하여 이른바 理學을 樹立했으나 그것은 漢唐의 訓話學에 대한 批判과 反省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佛學과 事功學의 超克에 의해서 成就되었던 것이므로 그와같은 深淵하고 廣大한 儒敎哲學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佛學에 대한 朱子の 辨難은 熾烈하였으나 이것을 否定的 媒介로서 儒道를 止揚한데에 그의 理學의 精粹가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理가 佛民의 理(道家로부터 發한 것)의 超克에 의한 것임을 안다면 容易하게 明白해질 것이다. 그는 나의 理를 宗, 佛氏의 理를 虛(空)로 하고 實理를 가지고 虛理를 쳤었다. 이것은 사실은 「武器를 휘두르며 방으로 들어가는」 手法이었다 이것에 의해서 그는 佛學의 隆盛을 阻止하고 儒學으로 化했다. 그것은 참으로 偉業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朱子가 佛學과 事功學을 排斥한 理由는 무엇이었던가. 要컨대 前者는 理想으로 치닫고 現實을 忘却, 後者は 現實에 溺하고 理想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佛學에서의 道는 超越的인 것이기 때문에 淸純하고 그리고 深淵한 데는 있으나 그것은 複雜하여 受動不息하는 人間의 共同生活, 自然界와 渾然一體로 되어있는 複雜한 人間社會에 일일이 對應하여 이것과 直結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事功學으로 설명하는 道는 이것과 反對로 現實의이기 때문에 現實生活에는 有用하지만 佛學에서 볼수있는 淸純함 또 深淵함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上述한 朱子學成立의 過程에서 朱子가 唯理的인 二元論的 世界觀 또는 人生觀을 세우기에 이른것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朱子에 의하면 모든 現象은 氣라고 하는 質料의 生成變化에 근거하나 거기에는 嚴然한 基準과 法則, 或은 規範이 있으며 同時에 또 그 存在를 存在되게

하는 始原이 있다. 前者가 所當然, 後者가 所以然의 理이라는 것. 朱子が 말하는 理는 實은 法則性을 가짐과 同時에 生命性을 갖는 것으로 어느 한쪽에도 限定할수 없는 것이다. 朱子는 理는 超越的 存在가 아니며 氣에 內在하고 따라서 個個의 事物에 內在하여 그 性으로 되는 것인데 다만 價值的으로 理는 氣에 先分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前述한 바와같은 二元論을 提唱하기에 이른 것이다.

朱子는 이와같이 理를 內在的인 것으로 하고 個個의 事物의 性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學에 있어서는 個個의 事物에 관해서 하나하나 그 理를 窮究함을 要하고 그 功을 累積한다면 곧 豁然하게 그것이 一淸인 境地에 到達한다. 그렇게 되면 宇宙는 손에있고 萬化는 身에서 生한다고 한바와 같이 萬事萬變에 對處하여 이것으로 하여금 각각 處所를 얻게할 수가 있다. 이것이 天地, 物을 生하는 心이라고 생각한듯 하다. 그리하여 朱子는 人間만이 이것을 이룰수있다고 했다. 그것은 人間이 萬物中 가장 秀位를 받은存在이며 따라서 「人은 天地의 心」이라고 하듯이 天地萬物을 身에 體得하고 있는 存在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窮理에 있어서도 靈活한 心에 注目하여 이것을 重視하기에 이른것은 當然하나 故로 心은 明德을 구비하고 있고 虛靈不昧, 衆理를 具備하여 萬事に 應할 수 있는 것이나 氣稟이 私欲에 隱蔽되어 이것을 분명히 할수 없다고 하고 敬이라는 嚴肅한 存心의 工夫를 그 要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心은 一指도 물드릴수 없을만큼 靈活한 存在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存心을 要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心體를 保存하고 그 用의 絕對性을 期할 수 없다고 하여 萬物에 관해서 하나하나 그 理를 窮究하여 그 性을 다하는데 의해서 心의 全體大用을 得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朱子の 이르바 全體大用思想이다. 이 思想은 佛學과 事功學을 超克하여 樹立한 그의 新儒學의 特色을 如實히 나타내는 것이라 해도 좋다.

上述한 바와같이 朱子는 「學으로서 들을 提示했다. 一은 居敬存心이며 다른 一은 格物窮理이다. 前者를 實踐의 工夫이라면 後者는 知的 工夫인 것이다. 朱子の 경우는 兩者는 相須하여 비로소 그 「眞」에 到達한다고 했는데 朱子の 경우는 약간 知的인 工夫를 重히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窮理가 人事社會의 理想뿐 아니라 널리 自然界의 諸象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故로 朱子學者속에 例컨대 博多의 儒者, 貝原益軒과 같이 科學技術面에 偉大한 功績을 남긴 사람이 나오게 된 것도 當然하다 할 것이다. 朱子는 이와같은 廣範한 窮理의 根柢를 人倫에 두고 이것을 모든 學問의 始原이며 究局이라고 하였다. 그가 人倫의 根幹으로 한 것은 自他共存의 愛의 理心의 德인 仁인데 朱子에 의하면 이것은 天地의 生德이라하고 朱子는 이理의 體得과 實踐에 가장 힘을 傾注하였다. 科學과 道德이 分離하고 있는 現代의 學問을 볼때 朱子의 이와같은 學問의 態度는 一顧의 값이 있을 것이다. 朱子는 이와같은 人倫主義에 立却한다고는 하지만 現實의 諸相을 直視함을 잊지않고 人情의 幾微를 探究하고 權謀術策의 秘奧를 窮究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故로 그는 단순히 理想을 높이 揭揚 하여 그것으로서 終息할려한 것도 아니었다. 이와같은 態度야말로 참으로 理想을 살리는 것이며 이 또한 理想主義者로서는 好箇의 虛訓일것이다.

二元論的 構造를 갖는 朱子의 理想主義도 一步 잘못되면 佛氏의 虛弊나 申韓의 慘酷의 弊로 陷入될 두려움을 生할 것이다. 또 窮理에 있어서도 心의 存養이라는 實踐的 工夫의 要를 잊고 오로지 知誠을 求하고 思辯을 弄한다면 理의 生命體를 枯死시켜 이른바 「渾沌」을 殺하는 過誤를 犯하는 愚行을 하지 않는다고 限하지 않는다. 朱子設後의 儒學은 혹은 唯理的인 理氣一元論的 世界觀에 서서 窮理에 있어서도 心의 存養에 힘을 쓴 朱子學이 明初에 興起하고 혹은 切至한 精敬의 存養에 從事하여 理의 깊은 體認을 旨로 한 朱子學이 明末에 興起 혹은 銳敏한 道德의 感知에 理가 있음을 自覺하여 唯心的인 世界觀이나 人性觀을 세운 陽明學이 明의 中葉에 勃興하여 時世를 風靡하고 혹은 唯氣的 一元論을 唱導하여 그 立場으로부터 朱子의 唯理論 혹은 陽明의 唯心論을 가지고 佛老를 虛學이라 斷定하며 이것을 痛論하여 復古學을 主張한 一派의 儒學이 明末에 胎動하여 清朝가 興起했는데 이들은 모두 既述한 바 諸弊를 敎할려고 한 것이다. 明末부터 清朝에 興起한 唯氣的 思想도 日本의 儒者를 鼓動하여 古學派의 擡頭로 되었

는데 이들의 思想은 見解에 따라서는 虛에서 實로의 展開를 必然으로 하는 中國의 傳統에 由來하는바 있었을지도 모르나 老莊이나 佛敎 思想을 超克하여 傳統的 儒敎를 深遠한 形而上學으로 昇華하여 東洋 思想史上 偉大한 功績을 남긴 理學의 發展을 阻害하여 次元이 낮은 思想으로 墮落시킨 結果로 되었다. 이 가운데 韓國의 李退溪를 尊崇한 日本의 崎門派의 朱子學은 朱子の 體認의 學으로 精絶한것으로 하여 朱子學을 한층 靜深 그리고 純正한 生命을 湛하는 것으로서 그 發展에 寄與하는 바가 있었음은 當然했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崎門派의 靜坐體認論이나 知藏說등을 보면 명백할 것이다. 朱子學이 提示하는 人倫中心의 世界觀도 그렇지만 그것을 背景으로 갖는 敬虔하고 靜深한 存養의 工夫야말로 가장 注目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人間의 「참된 主體性」의 確立과 養成에 緊要不可缺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끝)〈原文日本語〉